

청소년 상담연구와 상담실천의 통합

유 성 경

한국청소년상담원

응용과학으로서의 상담학은 궁극적으로 상담실천의 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을 학문적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의 통합 문제는 상담학내의 중요한 학문적 논의주제가 되어 왔다. 여기서 상담 연구와 실천의 통합은 상담자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상담 연구자 공동체와 실천가 공동체들간의 수준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과학과 실천이 전제로 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차이, 연구방법론의 문제,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연구의 특성 등의 이유로 인해 상담 연구와 실천간의 통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상담학의 하위학문인 청소년 상담학내에서 상담 연구와 실천간의 통합을 이루어 상담실제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책무성있는 상담 서비스(accountable service)를 제공하고, 상담 실체에 적용가능한 이론(applicable theory)을 창출하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 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실정에 맞는 현장감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수용하여 자연스러운 상담현장에서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연구풍토를 조성할 것과 학술지의 성격을 다양화하여 현장 응용력이 높은 연구결과물의 전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연구와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현장을 개발하고 연구자 공동체와 실무자 공동체들간의 좋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문제의 제기

상담학의 기본적인 관심은 “무엇을, 어떻게 도

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내담자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은 상담 연구자¹⁾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상담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applicable science)을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로, 상담 실무자²⁾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책무성이 높은 상담 서비스(accountable practice)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상담 연구의 적용성은 연구결과에 대한 상담현장에서의 현실검증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으며, 상담 실천의 책무성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통합은 상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통합 논의는 1949년에 미국의 보울더(Boulder)에서 ‘과학자-임상가 모델 (scientist-practitioner model)’을 상담자 훈련의 표준모델로 채택한 이래로 상담학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로 등장되어 왔다. 그러나 두 영역간의 통합의 중요성은 누차 역설되어 온 데 비해, 실제 상담 연구와 실천의 현장에서는 둘 간의 통합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Howard, 1986; Shakow, 1984; Sticker, 1997). 상담실무자들 가운데 상담학 관련 학술지를 구독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들을 자신의 임상장면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상담 서비스의 질을 점검해 가고 있는 상담실무자가 얼마나 되는지? 상담기관을 찾는 내담자들에 관한 정보와 이들이 상담을 통해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는 상담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대학에서 상담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및 학생들이 자신의 임상 경험 혹은 다른 상담 실무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연구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의 통합이라는 문제제기는 앞에서 제시한 상담학내의 상담이론과 실천간의 통합이라는 원론적 문제를 상담의 실제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계 현(1997)은 이제까지의 상담학 이론은 전통적인 심리치료이론들의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실제 문제 내지는 상담활동의 적용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론적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문제 자체에 적합한 실질적 이론을 얻을 수 있는” (p. 35) 방법으로 적용 영역 또는 문제 영역에 따른 이론적 접근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상담 연구와 실천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상담학이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 활동간의 통합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 실제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최적의 도움을 주기 위해 생각해 봐야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청소년 상담학은 일반 상담학의 하위학문으로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에 관한 논의의 흐름과 내용은 일반 상담학내에서의 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담학, 크게는 인간 변화를 돕기 위한 전문 활동(helping professions)과 관련된 학문체제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 문제를 먼저 고찰해 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 상담연구자, 상담이론가, 상담과학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

2) 상담실천가, 상담실무자, 상담현장 중 새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

로 청소년 상담학내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학의 학문적 성격을 응용학문으로 규정하고 상담학내에서 상담 연구와 상담실천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둘째, 상담학내에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괴리가 생기고 이들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학의 학문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 상담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제언해 보았다.

상담학에서 상담 연구, 상담 실천간의 관계

1. 상담학의 학문적 성격

상담학의 학문적 특성은 상담이라는 활동에 관한, 상담이라는 활동을 위한 학문적 체계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내담자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학문체계라고 하겠다(김계현, 1997; Shakow, 1984). 그러므로, 상담학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담 실천이며 상담 연구는 상담 실천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학에 대한 성격규정은 상담학을 응용학문으로서 전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상담 연구를 통한 결과들이 상담 실천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 도움이 되고, 상담학의 새로운 이론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방법론들이 상담 실천에 실제적인 함의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담 실재를 통해 우리가 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내담자에게 유익을 주는 동

시에 가능한 위해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상담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 장 호, 1997). 즉, 상담실체가 발전하려면 학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상담 연구와 실천 통합의 두 가지 수준

상담학내에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상담자 개인의 수준에서 그리고 상담자들 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보울더 모델, 즉 과학자-임상가 (scientist-practitioner model) 모델은 “**상담자 개인의 수준**”에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상담자 개인의 훈련과정에서 상담 연구 및 상담 실천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들을 교육함으로써 상담 실천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서 상담이론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임상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혹은 상담소에서 상담실무자로 일하면서 상담성과 및 과정과 관련된 연구, 혹은 내담자 및 상담자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함으로 자신의 상담 실천활동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상담실무자가 모두 개인적으로 상담 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이룬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담자 개인이 이렇게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또한 어떠한 기관에서 일 하는냐에 따라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상담자 교육 과정을 통해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을 모두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각 개인의 관심과 적성을 검토하게

되고, 교육, 훈련과정을 마친 뒤에는 상담 연구 및 상담 실천 가운데 한 가지에 전력을 기울여 자신을 “상담 연구자”로 혹은 “상담 실무자” 중의 한 가지로 자신의 주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상담 연구 활동을 주로 하는 상담 연구자들과 상담실천을 주로 하는 상담자 실무자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활동의 방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은 “**상담자들간의 수준에서**” 연구와 실천의 통합이 이루어진 예라고 할 수 있다.

상담연구와 실천의 통합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수준, 즉 상담자 개인 내에서 또한 상담자들 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담 실무자 개인이 본인이 사용하는 상담 기법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해야하며, 상담 연구자 개인은 본인이 연구를 통해 창출해 내는 이론이 실제적인 시사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실무자 공동체(practitioner community)와 상담연구자 공동체(scientist community)들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서로간의 전문성이 상보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상담 연구와 실천 통합의 구체적인 양태

그러면 여기서 상담학에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먼저 상담 실무분야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세 가지 활동들, 즉 상담연구물 소비자(research consumer), 평가자,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Barlow, Hayes, & Nelson, 1984).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담연구를 통해 밝혀

진 결과물들, 예컨대, 새로운 상담기법, 실제 상담장면에 적용해 보고, 둘째,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상담개입의 효과성을 체계적,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셋째, 상담 실천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하여 상담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 연구활동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논의한다면, 실제 상담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상담 효과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의 질을 높이고 상담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학문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실제에 적용 가능한 그리고 실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법 내지는 이론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담 연구와 실천간의 통합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

1. 패러다임의 차이

상담학내의 과학적 연구활동과 임상적 실천활동간의 통합이 오랫동안 주요한 학문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학내에서 연구활동과 실천활동의 조화로운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Sticker(1997)는 연구활동과 실천활동간의 통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과학과 실천(science and practice)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활동이 전제하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의 차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담 연구활동의 경우는 공적이며 자기 교정적인(public and self-correcting) 활동이라면, 상담 실천활동의 경우는 사적이며 변화에 대해 보다 저항적인(private

and more resistant to change) 활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사적인 삶을 증시하는 상담 실천활동에서는 비밀보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공적인 지식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상담연구과정에서는 비밀보장의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상담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으로 선발된 내담자들의 경우, 기법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적어도 사후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지연해야 한다. 이는 공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개인적인 회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상담 연구활동의 경우는 전자, 공적인 지식의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지만 상담 실천 활동에서는 후자, 내담자 개인의 복지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Shakow & Thorne, 1984). 패러다임의 차이는 태도, 가치, 기본전제, 관심의 차이를 동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담 연구자와 상담 실천가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Sticker(1997)는 두 영역에 소속된 사람들간, 상담 연구자들과 상담 실천가들간에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넓혀가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2. 연구방법론의 문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실제적인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의 문제이다(Howard, 1986; Neufeldt & Nelson, 1998). 방법론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상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 상담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론들이라는 것이다(Gelso, 1979;

Shakow & Thorne, 1984). 상담 현장에서 상담 실무자들이 상담기법의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결과로 판정되어 학회지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해야만 한다. 예컨대, 개별사례 분석방법 보다는 적어도 비교집단을 둔 연구 디자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이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화된 연구 방법론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 실무자들이 이러한 방법론을 터득하여 이를 실제로 실시하기에는 시간과 흥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법론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상담 실무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연구를 직접 진행하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상담 연구물들, 예컨대 상담 학회지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상담 현장에서 그다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상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구방법론들은 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그 만큼 축소시키게 되어 상담 연구결과를 상담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 실제적인 적용가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Howard, 1986; Neufeldt & Nelson, 1998). 예컨대,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 연구의 경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잡음변인들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통제된 실험상황에서 얻은 연구결과들을 잡음변인이 수 없이 존재하는 실제 상담상황에 적용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Seligman(1995)은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한 상담기법을 실시하도록 훈련된 상담자가, 특정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된 특정한 내담자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연구를 "효과성 연구(efficacy studies)"³⁾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성

연구는 실제 상담상황에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중요한 현실적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생략하고 있어서 적용상의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statistically significant) 결과가 실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clinically significant)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Carver, 1978).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상담 기법이나 절차를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상담연구결과 전달방법의 문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통합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상담 연구결과물이 주로 전문학술지를 통해서만 전달되는데, 이들 전문 학술지들이 요구하는 연구 결과물 제시방식이 상담 실무자들에게는 전혀 친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 (not user friendly for practitioner)이다 (Sobell, 1996, p299). 전문 학술지들이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은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학자들간에 통용되는 기술적인 용어들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분석과 해석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 실무자들은 이러한 기술적 용어, 통계적인 수치 및 해석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으므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실제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상담학에서 상담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위한 몇 가지 실제적 제안들

이제까지 상담심리학에서 상담연구와 상담실천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본 절에서는 청소년 상담학이 상담 실재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활동의 책무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연구와 상담실천간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는 연구주제의 설정

청소년 상담 실재에 적용 가능한 상담이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담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당면과제**—발달적,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상담학의 기본 관심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내담자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가?”이다. 그리고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계현(1999)은 청소년 상담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담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주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성인들과는 매우 다르며, 이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전략도 성인들의 경우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상담의 대상으로서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해 나가면서 성인들을 위주로 개발된 전통적인 상담기법

1) efficacy study는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이며, effectiveness study는 자연적인 임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김계현(2000)은 편의상 전자를 “효과성”, 후자를 “효과”로 구분하였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인식이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상담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기존의 상담전략과는 뭔가 다른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상담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 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이 기존의 성인 내담자들과는 다르다는 막연한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마구잡이로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혹은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도움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상담성공을 이루었다라도, 이들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이들 결과가 체계적인 학문적 이론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정확한 요구 조사, 구체적인 기법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다. 상담의 현실과 상담 연구간에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적 상담 대상에게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김계현(1997)은 “작은 이론”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작은”의 의미는 상담이론이 적용되는 대상 및 문제의 범위를 실제 문제 및 대상으로 축소시켜 생각하여 이론적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데 실제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이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수용

청소년 상담심리학에서 연구와 실천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상담 연구와 실천의 통합의 문제를 논의한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담심리학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한결같이 제안하고 있다 (Howard, 1986; Steenbarger & Smith, 1996). 구체적으로 Seligman(1995)은 기존의 “효과성 연구(efficiency studies)”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결과가 상담현장에서의 응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적인 상황에서 상담자, 내담자, 상담회기 등의 통제 없이 상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연구(effectiveness studies)”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엄격하지 않은 방법론을 사용하면 그러한 연구는 저질의 연구로 판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으로 통과되지 못하거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연구 풍토는 상담실무를 하면서 과학자적 관심을 가지고 상담성과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김계현(1999)은 연구방법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방법론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통제하지 못한 연구”를 여러 차례 수행하여 상담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Neufeldt & Nelson(1998)은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상황에서 연구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전문 학술지의 다양화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수용은 학교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상담연구결과가 주로 전달되어지는 전문 학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전문 학술지들은 엄격한 방법론, 주로 양적 방법론에 의해 잘 통제된 연구절차를 거친 연구물들만을 게재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상담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Sobell(1996)이 제안 한 바와 같이 순수 과학적 학술지와 더불어 상담의 임상적 결과들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둔 상담현장감을 담은 응용과학적 학술지들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경향을 보면 상담심리학의 대표적인 저널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담심리학회지(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에 질적인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물들이 점차 게재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다른 학술지들의 경우에는(예를 들어,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한 학술지 내에 순수연구 목적으로 한 연구와 임상적 함의가 많은 연구들을 각각의 다른 유목으로 분류하여 연구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 상담학과 관련된 전문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들이 상담실무자들에게 많이 전달되도록 하되 전달된 연구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술적 분위기가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학문적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와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현장개발

청소년 상담연구와 상담실무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교육이 이루어지는 상담현장에서 상담연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Neufeldt & Nelson(1998)은 상담교육 현장(예를 들면, training clinics)에서 상담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담실체에 시사점이 높은 연구문제를 채택할 수 있게되고, 상담연구의 질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실습훈련을 받으면서 청소년 상담실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문제를 채택하고, 그 상담센터에서 연구 데이터를 얻어 상담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학과교수와 상담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선임 상담자들에게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상담현장에서 상담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구체적인 연구주제의 예로 Steenbarger & Smith(1996)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ongoing quality assessment)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으로 내담자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몇 회기마다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감으로써 상담개입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Sticker(1997)는 분야별 임상가들의 연구공동체들이 상담현장에서 상담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경우, 청소년 상담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능한 관련 선행연구물들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청소년 상담연구자 집단과 청소년 상담실 무자 집단간의 파트너십 개발

상담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과학자 집단과 상담 실무자 집단간의 협력관계, 좋은 파트너십을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상담자들은 그가 어느 곳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맡겨진 일의 종류에 따라, 혹은 개인의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연구 혹은 실천 중에 어느 한가지에 보다 많은 전문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조화롭게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면 연구와 실천활동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그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비행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전략을 개발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된 비행문제의 성격은 어떠한며,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어떠한며, 지역사회의 상담 자원 가용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상담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지역사회의 대학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논문연구를 해야하는 학생들을 잠재적 연구수행자로 제공하고, 그 지역의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과의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연구 결과물 해석에 대해 임상적 감각을 제공하고, 실제 데이터 수집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연계활동을 이룰 수 있다면 연구와 실천간에 통합을 이룬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담연구자들과 상담실천가들의 협력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앞서도 제기한 바대로, 이들의 활동이 전제하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태도, 가치, 및 익숙한 용어들도 달라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넓혀 가려는 노력을 통해 두 영역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Heppner와 동료들은(1992) 상담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서로의 역할 보다는 상담이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의 전문성을 통합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이들간에 정기적인 회합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맺 음 말

청소년 상담학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화되기 시작하고, 청소년 내담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인 위상을 갖기 시작하여 아직은 구체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중의 학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문체계의 정립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담 연구와 상담 실천간의 통합은 청소년 상담학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어 진다.

모학문이 이미 확고한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후속하여 등장하는 신참학문은 이미 기존하는 이론에 쉽게 의존하고, 부분적인 내용을 빌려다 쓰는 식의 활동을 하기가 쉽다. 청소년 상담학의 경우도 이미 방대하게 정리되어진 심리치료 이론에서 이론적인 틀이나 내용들을 손쉽게 빌려다 쓰고자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응용학문으로서 상담학이 의미를 갖는 것은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을 때 만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상담학이 실제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최적의 도움

을 줄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이론의 창출을 위해 청소년 상담 연구자들은 청소년 상담실무자에게 의미 있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상담실무자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연구물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내의 학문공동체, 실천공동체들이 상호협력력을 위한 교육적 기반, 학문적-실천적 풍토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어 진다.

참고문헌

- 김계현. (1997).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계현. (1999). 청소년상담 연구의 과제와 전망. **제6회 청소년상담학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1997). **상담의 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Hepner, P. P., Carter, J. A., Claiborn, C. D., Brooks, L. G., Charles J., Holloway, E. L., Stone, G. L., Wampold, B. E., & Galassi, J. P. (1992). A proposal to integrate science and prac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9, 30-33.
- Hooper, D. (1997). Then, now, and tomorrow. In S. Palmer & V. Varma (Eds.), *The futur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London: SAGE publications.
- Howard, g. S. (1986). The scientist-practitioner in counseling psychology: Toward a deeper integration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4, 61-105.
- McLeod J. (1997). Research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In S. Palmer & G. McMahon (Eds.), *Handbook of counseling*. London: Routledge.
- Neufeldt S. A. & Nelson M. L. (1998). Research in training clinics: A bridge between science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315-327.
- Seligman, M. E. P. (1995).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The Consumer Reports Study. *American Psychologist*, 50, 965-974.
- Shakow, D. & Thorne, F. C. (1984). In D. H. Barlow, S. C. Hayes, & R. O. Nelson(Eds.). *The scientist practitioner: Research and accountability in clinical and educational setting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Sobell, L. C. (1996).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tists and practitioners: The challenge before us. *Behavior Therapy*, 27, 297-320.
- Steenbarger, B. N. & Smith, H. B. (1996). Assessing the quality of

counseling services: Developing
accountable helping system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145-150.

Sticker, G. (1997). Are science and
practice commensurable. *American
Psychologist*, 52, 442-448.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 Youth Counseling Psychology

Sung-Kyung Yoo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Since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was adopted as an ideal training model for counseling professionals in Boulder conference,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has been an important issue. However,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paradigm of science and practice, the integration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s not easy. Methodology and terms for counseling research is complicate for counseling practitioners to understand and use. In this paper, specific suggestions are made to bridge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 youth counseling psychology; choosing research topics applicable to youth counseling practice, encouraging to use diverse research methodology, presenting studies in journals more applicable to counseling practice, doing research in counseling training clinics, and developing on-going partnership between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